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동북일보 5면

강북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안전심의 및 현장방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7월 12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제2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전을 심의하고,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북구제지원센터,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여 곳에 대한 현장 활동을 하였고, 우이동 일대(▲더 파인트리 공사현장 ▲가족캠핑장 조성부지 ▲인공암벽장 설립부지 ▲교통광장)를 방문하여 구청 집행부와 함께 시설 공사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는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이백균 의장이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한편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드림

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등 2개의 안전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조운섭 의원은 '우이동 솔밭공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우이동 도선사입구 및 떡거리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건의하였고, 구본승 의원은 '양성평등주간 다양한 행사를 확대'하고, '강북문화재단, 살아있는 삶의 문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 발언하였다. 이어서 이정식 의원이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을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북부신문 5면

강북구의회, 현장 활동 중심 227회 임시회 폐회 신상발언 두고 이백균 의장과 이정식 의원 의견 충돌도



▲ 이백균 의장이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제22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현장 의정이 두드러져 8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전심의 외에도 관내 주요 시설을 살펴보는 현장 의정활동을 가졌다.

상임위원회별 현장 점검 외에도 강북구의회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더 파인트리 등 우이동 일대를 찾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등 2개의 안전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조운섭 의원은 '우이동 솔밭공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

치'와 '우이동 도선사입구 및 떡거리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건의했고,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의 양성평등 정책과 강북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이정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강북구 체육회 문제로 불거진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신상발언과 관련 이백균 의장은 강북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 집행부 공무원들의 퇴장을 지시해 잠시 이정식 의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강북구의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현장방문 및 안건처리,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등



강북구의의회는 7월12일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강북구의의회(의장 이백균)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제2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북봉제지원센터,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여 곳에 대한 현장 활동을 하였고, 우이동 일대(▲더 파인트리 공사현장 ▲가족캠핑장 조성부지 ▲인공암벽장 설립부지 ▲교통광장)를 방문하여 구청 집행부와 함께 시설 공사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는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

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였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조윤섭 의원은 '우이동 솔밭공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우이동 도선사입구 및 먹거리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건의하였고, 구분승 의원은 '양성평등주간 다양한 행사를 확대'하고, '강북문화재단, 살아있는 삶의 문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 발언하였다. 이어서 이정식 의원이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을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강북구의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제2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 관내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

원회별로 강북봉제지원센터,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여 곳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가졌으며, 우이동 일대 ▲더 파인트리 공사현장 ▲가족캠핑장 조성부지 ▲인공암벽장 설립부지 ▲교통광장 등을 방문해 구청 집행부와 함께 시설 공사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는 다양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서는 ▲서울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 조윤섭 의원은 '우이동 솔밭공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우이동 도선사입구 및 먹거리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건의했다.

구분승 의원은 '양성평등주간 다양한 행사를 확대'하고 '강북문화재단, 살아있는 삶의 문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정식 의원은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을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유영일 기자